

## 후두 결핵 환자의 임상 양상 및 진단, 치료 경과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  
조현진\* · 손영익 · 백정환 · 정한신 · 정만기

### 서 론

후두결핵은 과거에 비해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임상 양상이 비특이적이고, 매우 다양하며 치료 시작시기가 지연될 경우 결핵균 과급의 원인이 되거나, 후두협착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본원에서 경험한 후두 결핵의 임상양상, 진단과정 및 치료경과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 방 법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에서 후두 결핵으로 진단하고 치료한 25예를 대상으로 임상양상, 진단과정 및 치료경과에 관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 환자들은 남자가 15명, 여자가 10명이었고, 진단 시 평균연령은 47(20~75)세였다.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결핵성 후두염의 소견을 확인한 경우가 12명이었으며,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13명의 경우 후두 내시경 소견상 명확한 후두염 소견이 있으면서 객담 결핵균 도말/배양검사 또는 결핵균 연쇄 중합효소 반응에서 양성이고 항결핵제 치료에 반응을 보인 경우에 후두 결핵으로 진단하였다.

### 결 과

전체 환자의 80%인 20명이 애성을 주증상으로 호소하였고, 인후통, 기침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각 44%인 11명이었다. 또한, 36%인 9명의 환자에서는 전신 증상인 체중 감소를 함께 호소하였다. 후두 내시경 검사에서는 44%인 11명의

환자에서 불규칙적 후두 점막 소견, 28%인 7명의 환자가 궤양성 후두 점막 소견을 보였다. 병변의 범위는 단측성이 60%인 15명, 양측성이 40%인 10명이었으며, 이중 3명에서는 전체적인 부종 및 종창 소견을 보였다. 흉부 방사선 검사상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된 경우가 전체 25명 중 72%인 18명이었으며, 객담 배양검사를 시행한 24명 중 92%인 22명에서 양성 소견을 보였다. 전체 환자들 중 경과 관찰이 되지 않았던 3명과 타원 치료를 받았던 2명을 제외한 20명의 환자에서 모두 평균 7개월의 일반적인 항결핵제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객담 검사와 후두 내시경 검사 상 완치 판정을 받았다. 1명의 환자에서는 후두결핵으로 진단된 후, 약물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경미하였으며 후두 내시경 소견에서도 이상 소견을 보여 이후 시행한 조직검사서 후두 편평상피암이 함께 진단되었다.

### 결 론

후두 결핵은 다양한 임상 증상과 비특이적 후두 소견을 보이므로 후두 질환의 감별 진단에 있어 항상 그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여러가지 진단 기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폐결핵과 동반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후두결핵이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반드시 폐결핵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후두 결핵은 항결핵제를 통한 치료 성적이 우수하므로 약물치료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후두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직검사의 시기를 늦춰서는 안된다.